거기에 지금 말씀 주신 '모노즈쿠리' 정신과 기법을 연수에 중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재단의 핵심이고, 또한 좌장님께서 말씀 주신 일본을 연구하는 층을 미력이나마 돕기 위해서 개론, 총론, 추상 이것을 버리고 넓고 얕게가 아니라 좁고 깊게 각론에 입각한 여러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연구가 보다 널리 전파되도록 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연구자 중에 한 분이 오늘 발표자 중에 한 분이신 박정규 박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곧 다음 세션을 시작을 하기 전에 진지를 드시게 될 텐데 오늘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입니다. 해서 '경제연계의 확대'라는 세션을 가졌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관해 굉장히 많은 자산을, 통찰력이 있는 파악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한일경제회의가 앞으로 실행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며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며 피부로 느껴지는 성과물로 연결시켜 가는 데 엄청난 자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좌장님과 네 분의 발표자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곧 이어서 36층에서 양국 단장단의 공동성명 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 주시고 양측 대표단께서는 바로 옆방에 마련된 오찬장에 가셔서 자유롭게 오찬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1시 20분부터 저희들이 2차 세션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5분 전까지는 가능한 한 착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오찬의 시간을 갖고 다음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세션에 적극적 참여 다시 한 번 사무국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6. 제 2세션

사회 :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사회 : 이미 오전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익숙해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채널 1이 한국어, 채널 2가 일본어입니다. 채널의 설정 그 다음에 음량의 조정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모든 분들 착석하시기에 앞서서 2세션 '한일 상호교류 증진'이라는 제목입니다만 앞에 우선 좌장님들을 모셔서 인사를 드리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상에 오르신 다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잠깐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이시 타다시 좌장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교수님 단상에 올라 주시겠습니까. 숙명여대 이형오 교수님 단상에 올라주시지요. 마츠무라 아키히로 부장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치 카즈히로 SJC이사장님도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2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회의장 온도 괜찮으신가요? 너무 덥거나 춥다고 느끼시는 분은 말씀 주시면 온도 조절 하겠습니다. 혹시 계시는가요? 그럼 지금 온도가 적당한 것으로 이해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좌장님과 네 분의 훌륭하신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2세션은 1시 20분부터 시작을 하고, 다음 폐회식에 앞서서 공동성명안을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2세션은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라는 큰 제목 하에 '한일 상호교류의 증진'이라는 주제로 네 분의 발표 그리고 토론이 있겠습니다.

2세션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의 발표자 그리고 좌장님을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2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신 이데이시 타다시 NHK 해설주관 님이십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단상에서 인사만 한 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한국 측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와세다 대학 교수님 인사 한 번 해 주시죠. 한국 측 먼저입니다. 숙명여자대학의 이형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본 측입니다. 마츠무라 아키히로 부장님, 부탁 드립니다. 이구치 카즈히로 SJC이사장님, 오늘 발표자십니다.

이제 곧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2세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데이시 타다시 좌장님과는 한일 포럼이라고 하는 회의가 있어서 수차례 정치, 언론 또 경제 분야의 발표자 또는 패널로서 오랫동안 뵈어왔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이해 또 애정을 가지고 계신지는 진행 역할을 하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오사카 취재총괄도 하셨고 또 아시는 것처럼 NHK 서울 지국장을 연임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조심스러운 관측, 상상입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에도 호텔 인근에서 시청역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어제 굉장히 많은 시위대가 운집해서 뭔가의 주장을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아마 서울지국장으로서 많은 경험을 쌓으신 이데이시 좌장님께서도 현장에서 한국을 재발견하는 그러한 경험이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 2세션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데이시 좌장님 마이크 잡아주시고 네 분의 발표 인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이데이시 타다시 (出石 直)
NHK(일본방송협회) 해설주간



좌장: 네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를 받은 이데이시입니다. 맛있는 점심식사 후에 조금 졸릴 수도 있겠지만 제 55회라고 하는 매우 뜻 깊은 한일 경제인회의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세션이니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아침 대한항공을 통해서 하네다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했는데요. 하네다 공항에서 검색을 체크할 때 40분 걸렸습니다. 김포에 도착해서 굉장히 줄을 많이 서서 입국할 때까지 1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한항공 기내에서도 일본의 젊은 여성 일행들이 한류 스타의 팬일 텐데요. 굉장히 멋진 남성의 사진을 보면서 서울에 도착하면 어디 갈까 뭐 먹을까를 매우 즐겁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 업무상 한일관계는 국교 수립 이후 최악이라는 말을 최근 몇 년간 계속 입에 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광경을 보고 매우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일관계가 이처럼 급속도로 개선이 된 것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니셔티브 그리고 용기 있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대통령님의 열의에 기시다 총리님도 부응하셔서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매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한국을 방문해서 정상회의를

하셨고 또 '마음이 아프다'는 매우 엄중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한일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들만이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 계신 경제인 여러분 혹은 저와 같은 언론인들 그리고 학계, 문화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젊은 사람들이 역시 협력함으로써 정치가 약간 흔들린다 하더라도 변치 않는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서로 지혜를 모으는 그런 세션으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우선 네 분이 각각 20분씩 발언을 하실 예정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자는 와세다대학의 박상준 교수님이십니다. 박 선생님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신 후에 미국의 위스콘신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시고 그 후에 일본의 국제대학에서 교편을 잡으신 후 지금 와세다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 일본과 한국, 미국도 매우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시는 학자이십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와세다대학교 교수



방금 소개받은 와세다대학의 박상준입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큰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일 기업의 협력 방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한일 기업의 협력 방향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업이 가장 잘 아는 것이고, 기업이 정부라든가 언론을 향해서 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한일 기업의 협력에 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직 많이 터치되지 않았지만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그런 협력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이 발표하는 사람에게는 짧은 시간인데 듣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리고 지금 세션이 마지막 세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이 아니라 반드시 2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약은 만약을 대비해서 정말 시간이 없을 때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한일 교역의 현황을 보시면 대일무역이 2019년의 수출규제와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감소를 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코로나도 완화가 되어서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2018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국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한국이 일본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본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2022년의 국별 무역수지를 보시면 일본이 가장 많이 적자를 보는 나라들이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 중국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산유국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이 가장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를 보면 첫 번째가 미국이고 그다음이 홍콩, 세 번째가 한국입니다.

지금은 원유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천연가스라든가 비싸기 때문에 UAE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는 적자가 한국에서 보는 흑자보다 크게 나오지만 그 이전에는 2015년, 16년 이 때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본이 보는 적자만큼이나 일본이 한국에서 흑자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많은 물건을 한국에 팔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국에서는 농담으로, 저는 국제학부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 수업은 70% 정도가 일본인 학생이고 10% 한국인, 10% 중국인, 나머지 10%가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인데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사실은 이걸 보여주면서 갑과 을의 관계라는 것도 일본에서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통역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이 갑이다, 한국이 'お客様(손님)'이다, 한국이 많은 것을 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많고 대일무역 역조라고 해서 이걸 해소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많은데 저는 한국에서 정부 관계자를 만나거나 언론인들을 만나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크린을 보시면 우리가 일본에서 무역 적자를 많이 볼 때는 그만큼 교역이 굉장히 활발하고 생산 활동이 활발할 때입니다. 그 때는 또 반드시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많은 흑자를 볼 때입니다.

아주 최근에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적자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만약 한국이 일본에서 보는 적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평을 한다면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고 중국도 지난 세월 한국에서 계속해서 적자를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나라들도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적자를 보고 있다고 불평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중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는 무역에 있어서는 거의 늘 전 세계를 향해서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나라에서 적자를 본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본은 한국에서 흑자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좋은 것이고,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구조를 이용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흑자를 보고 있으니까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상대국의 수출입에서 한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한일 시장에서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제도 나왔고 아마 오늘 오전에도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요. 한국의 박스오피스 지금 현재 한국의 영화산업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상도 받았고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 영화산업이 위기라고 할 만큼 관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영화산업이 굉장히 많이 위축됐는데 코로나 이전인 2018년,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히트작이 못 나오고 있는데 그 반면에 놀랍게도 일본 영화인 '스즈메의 문단속' 그리고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는 이 두 영화가 지금까지의 한국에서는 박스오피스에서 랭킹이 1위, 2위입니다.

그런데 또 일본에서는, 저희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의 순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릅니다마는 넷플릭스의 드라마 순위인데 보시면 1, 3, 4, 5까지가 한국의 드라마입니다. 굉장히 한국의 K컬처라는 것이 K팝, K드라마 같은 것이 일본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문화면에서 지금 이 문화를 소비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지금 한국에서는 일본의 영화를 소비하고 관련된 상품들을 소비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KCON이라는 것도 말씀이 나왔었는데 제가 KCON이 어떤 분위기인지 알려고 지난 일요일에 마쿠하리멧세에 가서 KCON을 한 번 봤습니다. 봤는데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저는 무대에 올라오는 가수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집에 갈 때가 걱정돼서 중간에 나왔어요.

귀한 그런 자리인데 중간에 나왔지만은 거기에서 제 주위에 있는 일본인들이 무대에 있는, 저는 전혀 모르고 또 할 수 없는, 모든 춤 동작을 일본 아이들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일본시장의 변화를 보시면 대일 수출이 전반적으로 저조했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의 수출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의약품도 그런데요.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화장품. 제가 늘 수입화장품 시장에서 일본에서는 프랑스가 1등이다, 프랑스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2022년도 통계가 나왔더니 시장점유율에서 한국 화장품이 1위를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프랑스 화장품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일본 같은 고급시장에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요.

그리고 '콤비니'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영어의 '콤비니언스 스토어'를 일본에서는 콤비니라고 하는데 요즘 일본에서는 '칸비니'가 생겼다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칸비니'는 '콤비니'하고 '칸코쿠(한국)'를 합쳐가지고 '칸비니'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세븐일레븐보다 좀 큰, 콤비니보다 좀 큰 그런 매점들이 있습니다.

가면 모든 것이 한국 상품을 팔고 있고요. 그래서 식료품 수입, 일본에서 한국 식료품을 얼마나 수입하느냐 하는 것을 보시면 2022년에 식료품 수입이 급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은 2021년과 2022년, 2년 동안에는 안식년이었기 때문에 서울대학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라서 거의 일본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일본을 거의 못 가다가 안식년이 끝나서 올해 3월에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가서 여기저기 지날 때마다 슈퍼나 그런 곳에서 한국의 식료품을 한데 모아가지고 팔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건이 팔리니까 이렇게 한국 식료품을 모아서 여기가 한국 식료품 코너다 하면서 이 3개의 사진이 각각 전혀 다른 동네 그리고 전혀 다른 슈퍼에서 촬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런 변화의 기조 속에서 한일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서도 제가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네 번째 나온 전해질 첨가제라는 것과 그다음 소니 부품하고 안면인식 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기업들을 인터뷰를 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은 것인데요.

한국의 중소기업이 전해질 첨가제를 일본의 좀 큰 전해질을 만드는 기업에다가 수출을 하고요. 또 그 기업은 한국에서 전지를 만드는 기업에 또다시 자기네 전해질을 수출을 하고요. 또 한국의 전지를 만드는 기업은 또 일본의 전기차 만드는 기업에 또 수출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공급망이 굉장히 다양화되면서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웨이의 스마트워치 중에는 삼성 반도체가 드디어 화웨이의 스마트워치에 자기네

반도체를 납품했다고 해서 아주 큰 경사가 한 번 있었는데 그 삼성 반도체에는 또 소니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아까 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공항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께서 한국 공항에 들어올 때 얼굴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내국인은 하는데 외국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인식을 하는데 그 얼굴 인식하는 기계는 한국에서 만듭니다. 하지만 얼굴인식을 할 수 있는 센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NEC에서 납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범죄자들의 얼굴을 인식하는 기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데 한국 정부에서 외국에 보내는 그런 물건에도 NEC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2년을 한국에서 있다가 다시 일본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과거보다 더 밀접한 공급망 사슬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일본에서는 일본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전부 다 한일 협력이라든가 한일 간의 화해라든가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일본에서 하면은 일본에서도 한국하고 왜 이렇게 교류하느냐, 일본기업을 보호해야지 왜 한국 것을 사 오느냐, 한국하고는 단절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사로 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또 왜 일본 거를 사 오느냐, 한국 중소기업을 보호해야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런 경쟁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공급망의 형성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들도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 공급망의 작은 부분들을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자기네 위치를 찾아가서 비어 있는 부분들을 메꾸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화력이나 수력, 제가 1세션에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화력, 수력에서는 한일 기업이 협력한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과 일본 모두 다 그린에너지 쪽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과 일본만 생각한다면 특히 한국만 생각한다면은 그린에너지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그린에너지에 관련된 풍력이라든가 태양열이라든가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서로 제3국에 공동 진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관광산업의 한일 협력인데 일본이 지금, 제가 신주쿠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신주쿠가 이렇게 사람이 미어터지는 거는 처음 봤어요.

사실 일본의 관광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닌데도 지금 현재 도쿄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와서 그런지 신주쿠가 너무너무 복잡해질 정도로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온다 하더라도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았던 2019년을 비교해도 일본은 프랑스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기 제가 랭킹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국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제일 말단에 한국이 위치해 있고요. 또 많은 유럽 나라들이 들어가 있는데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에 있는 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면 유럽연합에 있는 모든 나라를 비자 없이 관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요. 인구가 과거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한국이 앞으로 겪게 될 일입니다. 내수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나라에서 관광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시장이 축소가 되니까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도 모회사가 이토요카도인데 이토요카도라는 슈퍼는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고, 세븐일레븐은 흑자를 보고 있지만은 지금 홀딩컴퍼니인 세븐앤아이의 외국인 투자가들은 세븐일레븐과 세븐앤아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수시장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토요카도가 적자를 본 것처럼 여기도 언젠가는 적자를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플랜이나 비전이 무엇이냐를 굉장히 묻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매출을 냈는데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시장의 축소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일본에서 여행과 레저, 호텔 사업에 훈풍이 불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회사인 Blackstone에서 지금 이런 분야 쪽으로 일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시가지 가격지수를 보시면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방까지 내려가는 그 때는 지방에 있는 부동산이 드디어 약간의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소멸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것도 관광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한국은 서로 비자가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미국 같으면 미국 비자를 가진 사람은 캐나다나 멕시코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유럽연합의 한 나라에 들어가면 다른 나라도 갈 수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미국인이 아니고 미국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프랑스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나 지금 중국 관광객이 조금 주춤하면서 일본도 한국도 동남아와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객들은 한국과 일본 중에 한 군데만을 선택해야 됩니다. 기껏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한국만 보고 가든지 일본만 보고 가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을 했을 때는 일수 제한을 둬가지고요, 일본도 관광을 하고 그러니까 중동에서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에 온 다음에 한국에서 일본에 가고 거기서 다시 한국으로 온 다음에 다시 본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간다든가 하는 망이 만들어지면 정부정책에서 지원이 되고 또 이 항공사들 간에 또 호텔, 여행업계에서 이런 망을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여행산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 아까 JETRO 이사님께서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벤처투자라든가 말씀하시면서 한국이 훨씬 더 벤처기업을 많이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앞부분에 제가 스킵했지만 일본은 지금 일손이 부족한데 한국은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한국의 청년들은 취업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현재 일손이 부족하고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후계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지금 이 후계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M&A를 지원하는 새로운 신생기업들도 일본에 많이 있고 크게 성공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쩌면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 안타깝게도 남아도는 시기인데 일본에서는 또 우수한 인력이 부족하니까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이 둘을 매치한다면 서로에게 윈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분에 마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박상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20분 시간을 지켜주셨네요. 매우 구체적인 제안을 몇 가지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에 대해서 유럽의 조약처럼 외국에서 오시는 관광객이 일본에서만 혹은 한국에서만 체류할 수 있는 상황을 바꿔서 양국을 세트로 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광 산업이 더 풍요로워지고 양국의 경제가 더 좋아진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미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공급망, 밸류체인이 계속해서 생기고 이를 통해서 제3국의 공동 진출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말씀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 KCON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어제 말씀드렸더니 마쿠하리멧세에 양복 차림으로 가셔서 상당히 혼자서 분위기가 들뜨셨던 것 같은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은 일본 측의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즈오카현 지역외교담당 부장님 마츠무라 아키히로 부장님.

마츠무라 부장님은 시즈오카현의 한국주재사무소의 소장님을 2013년부터 계속 하셔서 한국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츠무라 아키히로 (松村 昭宏)
시즈오카현 지역외교담당 부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즈오카현의 지역외교담당 부장 마츠무라입니다. 먼저 한일경제인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즈오카현의 지역 외교, 지자체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개 항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즈오카현의 개요입니다. 시즈오카현은 일본에서도 사실은 국토 중앙에 있습니다. 일본 국내분들은 물론 해외 분들로부터 시즈오카현은 어디에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치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시즈오카현은 아까 박상준 교수님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도쿄 그리고 서쪽으로는 나고야에서 신칸센 고속철도를 타고 한 시간이면 갈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의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동서로 좀 길게 뻗어있는 현입니다.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제조업체 그리고 기업의 로고가 보이고 있는데요. 시즈오카현에는 이와 같은 회사가 많이 입주해 있고요, 일본 제 3위 제조품 출하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송기, 기계,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회사는 자동차 회사로는 스즈키, 야마하, 혼다도 시즈오카에서 창업을 해서 공장이 있고 주요 부품은 시즈오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문화입니다. 실은 시즈오카현이라고 설명하기보다는 후지산이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3,770미터의 후지산 그리고 후지산이 보이는 스루가만은

2,500미터에 달합니다. 그리고 상하 6,000미터의 고저 차가 있어서 해발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스루가만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클럽의 회원입니다. 한국은 여수가 그 회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즈반도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시즈오카 현의 지역 외교입니다. 지역 외교라는 말은 일본 분들도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것 같습니다. 외교는 외무성, 한국에서는 외교부가 전담하는 항목으로 다들 생각하실 텐데요.

2010년에 시즈오카현은 지역 간 외교를 이어가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외무성에 지역외교라는 말을 써도 되겠느냐고 문의를 드려서 가볍게 쓰셔도 된다고 해서 이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역외교 부서를 갖고 있는 것은 군마현 그리고 올해부터는 오키나와현이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해서는 지역 간의 우호친선, 교육 이 외에 스포츠·관광 교류 촉진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경제인회의의 중요한 주제인 바로 통상의 촉진입니다. 중점적으로 이와 같은 시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역외교라고 해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인적자원과 금전적, 물적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즈오카현에서는 6개 국가 및 지역으로 한정해서 현재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을 제일 첫 번째로 들고 있는데요. 그 다음이 중국, 몽골 각각 포괄적인 분야에서의 우호협정 이른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소개 말씀에도 있으셨습니다만 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즈오카현이 한국에 주재원사무소를 만들었을 때 그 주재원사무소의 소장을 맡았습니다.

한국 외에도 중국에서는 상하이 그리고 대만의 타이베이, 싱가폴 이 네 개 나라에 시즈오카현은 주재원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한국주재원사무소 최근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장으로 남성 한 분 계시고 현재 직원 두 분이 계십니다. 지금 객석에 계시는데 다카하시 소장이십니다.

그럼 어디에 사무소가 있냐하면 여기서 걸어서 5분 정도 떨어진 곳, 한국 분은 아실 텐데요. 서울시청에서 약간 북쪽으로 무교로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관광 팜플렛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요. 혹시 지나가시다가 시간 되시면 가볍게 들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시즈오카현과 한국과의 교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즈오카현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지역과는 충청남도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체결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왼쪽이 무령왕 국제네트워크협의회와의 기념사진이고 오른쪽은, 한국에서는 등산을 매우 좋아하시는데요. 등산, 반더포겔(Wandervogel)의 MOU를 하는 장면입니다.

또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바로 다음 주 5월 24일에 충청남도 지사단에서 시즈오카현을 방문해서 기념 공연을 합니다. 즉 한국 측에서는 사물놀이를 비롯한 전통예능, 일본에서는 일본의 전통무용이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런 기념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교류 사례입니다. 충청남도와는 행정 간의 교류가 매우 딱딱하다고 느껴져서 지난

10년간 주로 민간단체 간의 교류를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여름에는 충청남도 보령이라는 곳에서 열리는 해양머드박람회라는 것이 한국 내에서도 베스트 3에 들어갈 만큼 인기 있는 행사인데요. 여기에 부스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후지산이 있는 현이라고 해서 매우 알기 쉽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즈오카현이 녹차로도 매우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녹차와 관련해서 시음회를 하고 또 홍보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리자면, 조선통신사가 시즈오카현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시즈오카현은 에도 막부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생의 3분의 1을 지냈던 곳입니다. 1607년 6월 20일에 이에야스가 당시 장군직을 퇴임하면서 임진왜란으로 중단되어 있던 조선왕실과의 평화로운 국교를 회복하기 위해서 조선왕조에서 파견된 조선통신사를 시즈오카현에서 환대를 했던 기념비가 있습니다.

시즈오카현에는 매년 6월 20일을 기념일로 삼아서 다도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도회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친족분들, 그리고 차를 만드시는 분, 그리고 한국의 주요 인물들을 초대를 하고요, 예전에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선통신사 우호 교류 장면입니다.

다도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1년 11월에 오른쪽 사진이 약간 작게 나와있는데요, 보시면 이 안에는 단장인 정진석 의원, 한일우호의원연맹의 일행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정진석 의원 그리고 지금 외교부장관 박진 장관도 이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간 교류이다 보니까 역사도 좋지만 역시 젊은 분들이 교류할 수 있는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상준 교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K팝이 지금 일본에서 크게 인기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댄스 퍼포먼스가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매우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해서 K팝 토크카페라는 이름으로 개최를 해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충청남도에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한국 K-POP고등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사카도 그곳과 교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역 교류입니다. 충청남도와 시즈오카현의 교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충청남도 옆에 충청북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충청북도와 시즈오카현과 후지산을 양분하고 있는 야마나시현이 사실은 우호협정을 맺었습니다. 정말 우연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현과 도가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즈오카현의 인구는 360만 명입니다. 이 4개 현과 도를 합한 인구는 800만 명에 달합니다. 역내 총생산액은 37조 엔입니다. 다른 나라로 보면 스위스, 이집트와 역내 총생산이나 인구 규모가 같은 수준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홍보가 되겠는데요. 동아시아문화도시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인지도가 매우 낮다고 하는데요. 동아시아문화도시는 한중일의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의해서 이 3개국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발전하고 있는 도시를 해마다 선정해서 그 도시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실시하는, 국가 단위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전주시가, 중국에서는 청두와 메이저우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막 도시는 전주에서는 4월, 시즈오카에서는 5월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해서 전주에서 3월에 시즈오카에 오셔서 전주를 홍보를

하셨습니다. 전주는 지난달에 국제영화제가 개최되어 매우 유명한 영화배우와 감독이 참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시즈오카현은 어떻게 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후 서서히 회복이 되었는데요. 일본의 지방공항은 비행기가 아직 복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즈오카에는 후지산 시즈오카 공항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주 7일 매일 비행기가 취항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번 왕복을 하고 있는데요. 항공사는 제주에어입니다.

그리고 도쿄에서 김포로는 매우 편리하게 하루에도 여러 편이 날고 있는데요. 도쿄에서 시즈오카까지 한 시간이면 갈 수 있으니까요. 시즈오카공항을 이용해서 한국에서 일본에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LCC이니까 항공권은 매우 저렴합니다. 여러분께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입니다. 지역외교에 대해서 외교를 왜 국가가 아니라 지역에서 하냐는 의견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 시즈오카 지사인 가와카스 지사는 매우 신념이 강한 지사님이십니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한일 관계와 마찬가지로 긴장 관계일 때도 있고 또 경제 제재가 있을 수도 있고 반일·반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냉각이 되기도 합니다만, 한 사람 한 사람, 또 지역 간에는 지금까지의 교류가 사라지지 않는 사실은 제가 스스로 직접 느끼는 점입니다.

이것이 한 번 중단되면 그 관계가 바로 사라진다는 것도 실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무리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지자체, 지방정부 간의 교류는 절대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지사님의 의견이시기도 하고 저희도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외교라고 하는 말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분들께서도 꼭 이 표현을 써서 지역과 해외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발표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장: 마츠무라 부장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 아내도 시즈오카현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발표하시는 SJC 이구치 이사장님도 시즈오카현의 하마마쓰시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즈오카의 응원단이 이렇게 무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곳입니다. 음식도 맛있고 자연도 풍요롭고, 물론 후지산은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요. 후지산뿐만이 아니라 시즈오카에 꼭 한번 여러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즈오카공항을 이용하시면 후지산을 관광하고 도쿄에 가거나 나고야에 가거나 교토에 가는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이켄지(清見寺)'라고 하는 훌륭한 절이 있습니다. 거기는 조선통신사가 남기고 간 여러 가지 선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시즈오카의 응원단으로 한 말씀 보탰습니다.

지자체의 지역외교가 있는데요. 지금 자국 중심으로 바뀌어가면서 자국 자본과 인력 모두가 일극화되면서 한 곳으로 서울, 도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지역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교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츠무라 부장님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국가와 국가 간에는 여러 가지 국익의 상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역과 지역은 이러한 것들 모든 것을 극복하고 국가 간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국의 발표입니다. 숙명여자대학의 이형오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형오 교수님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도쿄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와세다대학에서 교편을 잡으신 바 있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오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방금 소개받은 이형오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한일협력사업의 변화과정과 향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반적으로 한일재단이라고 하죠. 지난 30년 동안 해왔던 사업을 중심으로 이 내용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박 교수님께서 같은 논조의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박 교수님이 좀 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다면 제 이야기는 좀 더 마이크로 한 차원에서 한일재단이라는 조직의 사업을 통해서 한일협력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또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차는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발표의 목적은 한일재단이 작년에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992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2022년이 30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해왔던 사업을 쭉 살펴보고 그 사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러한 변화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제가 실제로 자세하게 조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단을 간단히 소개하고 재단 사업의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환경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러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재단이 사업을 어떻게 바꿔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난 30년간의 그런 변화패턴을 보면서 과거와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협력 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미래의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상당히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분야도 되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일재단이 설립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에 무역적자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92년에 양국 정부가 어떻게 하면 무역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1월에 만나서 가능하면 무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는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서 같은 해 9월에 한국 쪽에 한일재단이 설립이 되고 또 일본 쪽에는 일한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이 되겠죠. 1992년 9월 또 12월에 설립되었으니까 작년이 딱 30년이 되는 것이죠. 한일재단의 경우도 그렇고 일한재단의 경우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양국 간 정부의 합의에서 이러한 조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두 조직은 정부의 정책 하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분석할까 좀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제 분석 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이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사업을 연간사업으로 제가 먼저 둘러봤습니다. 그 연간사업을 조사해 보니까 30년간 819건의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연간사업은 어떤 경우는 단년도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여러 해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해에 걸쳐있는 그 사업 자체는 소위 같은 성격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개별사업으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개별사업으로 이것을 정리해 보니까 30년 동안 187건의 사업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별사업들을 다시 대분류와 중분류로 분류를 해보니까 대분류 차원에서는 세 가지 분야로 기술협력 분야 그리고 기반형성 인적교류 그리고 무역 및 투자협력 등 이와 같이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겠고, 각각의 대분류 안에서 다시 한 번 중분류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 분류는 제가 자의적으로 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성격이 유사한 것들로 모아본 것이죠. 그랬더니 기술협력의 경우는 중분류 차원에서 7개 사업군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7개 중에서 한 5개 정도는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2개는 부품소재라는 분야와 신산업으로 해서 산업을 특정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형성 인적교류의 경우는 경제인 교류 사업군과 지역 간 교류 사업군으로 나눌 수 있겠고 무역 및 투자협력의 경우도 한 다섯 가지 종류의 사업군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군을 나누고 분류를 해봤더니 전체적인 분포를 잠깐 살펴보시면, 먼저 대분류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이 재단 자체가 산업기술협력재단이다 보니까 기술협력 사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6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무역 및 경제협력 사업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기반형성 인적교류가 세 번째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분류 차원에서 이걸 분류를 해보니까요, 중분류 차원에서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게 세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아무래도 기술협력 분야의 사업들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30년간의 사업의 분포였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그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것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환경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시기적으로 그 변화패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30년을 10년 단위로 끊어서 3단계로 나누어서 이 패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993년부터 2002년까지를 1단계, 2003년부터 2012년을 2단계, 2013년부터 2023년을 3단계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왜 10년 단위로 나누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10년 단위 마다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10년간 이렇게 단위로 나누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 결국은 우리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결국은 재단의 사업도 변화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나름대로의 분석들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환경 중에서는 물론 정치적 환경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이미 우리가 겪었다시피 지난 몇 년간 정치적 환경 또 최근의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양국 간의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할 필요 없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구하는 쪽에서는 정치적 환경은 생략하고 경제적 환경만을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곧 구체적으로는 무역, 직접투자, 인적교류 그리고 제조업 경쟁력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변화 패턴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무역부분을 보시면 여기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죠. 보시는 것처럼 수출에 있어서는 이것은 한국의 수출과 수입입니다. 한국이 일본에 수출하고 또 일본이 한국에 거꾸로 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수입이 되겠죠. 이걸 보시면 1단계 2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출, 수입이 양쪽 다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3단계 되면 어떤가요? 오히려 좀 줄어들거나 또는 정체되는 패턴이 보이죠. 그리고 1단계, 2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사실 당초에는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무역적자가 더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근데 3단계 되면 생각보다 우리가 우려했던 그 무역적자가 줄어들거나 정체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는 미국, 일본, 중국이 매우 중요한 상대국인데요. 수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일본이 한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에는 상당히 높았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 3단계 끝이 되는 작년 2022년의 경우는 일본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불과합니다. 아주 미미한 정도가 되었죠. 그 대신 중국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물론 미국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일본을 대신해서 중국이 크게 부상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수입의 경우도 유사한 패턴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일본은 한국의 중요한 수입국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 비중이 거의 급속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92년 경우는 23%, 24% 가까이 됐었는데 작년엔 7.5%에 불과할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수입의 경우도 중국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접투자 상황을 보시면 일본이 아무래도 한국에 더 많이 투자를 해 왔죠.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보시면 일본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여기 빨간색 부분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3단계가 되면 어떻습니까? 줄어들거나 또는 정체하는 패턴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한국이 일본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 거의 미미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3단계 되면 오히려 한국이 일본 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적교류 측면에서도 참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당연히 과거에는 일본 분들이 한국에 오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한국인들이 일본에 가는 것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단계, 2단계는 일본인이 한국으로 오는 쪽이 훨씬 더 많았죠.

근데 3단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14년부터 거꾸로 한국인이 일본에 가는 인원수가 훨씬 많아지죠. 조금 많은 게 아니고 뭐 압도적으로 많다고 할 정도로 많아지고, 일본은 거꾸로 줄어들거나 정체하는 패턴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양쪽 다 급격하게 줄어들었지만 아마 다시 회복되면 과거의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만 제조업 경쟁력을 나타낸 지표 중에 하나가 CIP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UN의 산하기관인 UNIDO라는 곳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단계, 2단계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그 격차가 줄어들고 3단계에 오게 되면 거의 격차가 없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는 그런 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1단계, 2단계와는 다른 패턴이 3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1단계, 2단계는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3단계에서는 상당히 다른 패턴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일재단이 어떠한 사업을 해왔을까를 잠깐 살펴보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것을 한 번 읽어보시고 표로 한번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한일교류가 무역이든 직접투자든 인적교류가 증가하는 패턴이 보였죠. 또한 제조업 경쟁력에서는 한국과 일본 간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이 큰 또 목적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본으로부터 어떤 분야든 간에 기술을 또는 노하우를 도입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범용기술 도입형 협력사업 단계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2단계 되면 어떤가요? 2단계가 되면 무역적자가 줄기는커녕 또는 무역의 규모도 그 다음에 또 투자 규모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이가 축소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2단계쯤 되면 한국도 어느 정도 기술을 축적했기 때문에 단순한 범용기술이 아니라 좀 더 응용할 수 있는 기술, 기업들이 직접 쓸 수 있는 그런 기술 쪽에 그러한 니즈가 생기고 재단도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일본 현지에 한국의 기술자를 보내서 현장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이죠. 이런 것들을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3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일교류가 오히려 축소되거나 오히려 정체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양국 간의 제조업 경쟁력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러한 기술이전이 어려워지죠,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한국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이러한 기술도입 이런 쪽에 흥미를 예전만큼은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 쪽에 기술도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여러 가지 기술을 국내에서 활용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모노즈쿠리 인스트럭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경우는 일본에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받은 한국 기술자들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한국의 기업을 지도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의 형태가 변해 갔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재단의 사업 분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면서 기술협력사업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대신에 무역 및 투자협력 쪽의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분류 단계에서도 어떤 사업들은 늘고 어떤 사업은 줄어들고 어떤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본다면 범용기술 쪽의 사업들은 줄어들고 아무래도 좀 더 구체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도입기술을 활용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개별적인 사업들을 전부 다 정리한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1단계는 대부분 위탁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2단계쯤 되면 재단에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부품소재 분야 1단계에서는 아주 많은 산업분야에서 범용기술을 도입하는 차원에서 각 협회들이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다 2단계, 3단계가 되면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는 경제인회의는 경제인 교류사업의 한 분야이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역 및 투자협력의 경우에도 재단이 3단계에 와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연구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30년간의 사업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한일재단이 당초의 설립목적인 무역의 불균형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단의 사업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IP 지수에 있어서 한국이 일본을 많이 따라간 것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능가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단계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패턴의 사업을 할 필요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입기술을 활용하는 쪽으로 사업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이미 잘 보셨겠지만 기존의 1, 2, 3단계에서는 저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일방적으로 기술 이전 또는 노하우 이전을 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들이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형태의 사업은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기본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소위 윈윈형의 사업으로 가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중분류 기준에서 한 14개 사업군이 있었습니다. 그 중 이미 일부는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고 현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7개입니다만 이건 현재도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도 물론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쪽의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표시한 파란색 부분이 향후 새로운 방향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신산업 분야에서 좀 더 기술협력을 하자. 전통적으로 부품소재라든지 기계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술이전이 많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분야보다는 한국도 잘 할 수 있는 분야,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분야로서 신산업 분야를 지원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인적교류 분야에 있어서는 산업별로 협력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법령적인 경제인 전체의 어떤 교류, 지역 간 교류가 많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산업 간 협력, 과거에 사실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그것이 세대교체에 따라서 거의 다 끊어져 버렸는데요. 다시 한 번 복구시키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글로벌 공동진출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시간상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의 경우도 최근에는 IT라든지 소프트웨어와 신에너지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일본과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윈윈형의 사업을 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에너지라든지 원자력, 수소 분야 또 반도체, 전기자동차, 2차전지 이런 쪽에서 최근에 상당히 정치적 관계가 좋아졌습니다만 협력을 통해서 키우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협회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회 간에 연결이 되면 당연히 개별기업들도 자동적으로 따라서 연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협회 간의 연결고리를 다시 한 번 복원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시장의 공동진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 한국도 일본도 국내시장이 거의 포화 상태거든요. 결국은 이제 미래에는 해외시장을 통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례로서 한국중부발전이 한국의 큰 발전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회사가 보니까 딱 마침 이런 사업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세 번째 글로벌 공동시장 진출 분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에서 일본의 마루베니하고 스미토모상사하고 같이 이미 공동으로 진출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더 많이 하면 좋겠죠.

또 하나 신산업 분야에서 아주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간사이전력과 IHI가 같이 협업을 해서 한국의 기자재 회사들이 일본 가서 좀 더 공급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중부발전 쪽은 보니까 이 블루수소 쪽이 상당히 기술이 앞서 있는가 봐요. 이쪽에 오히려 간사이전력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 일본은 JERA의 헤키난발전소가 있는데 이쪽은 석탄, 암모니아를 혼소해서 하는 그런 발전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 있는가 봐요. 이쪽을 또 중부발전이 기술을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단이 지금까지는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간에 한국 기업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물론 중소·중견기업도 돕겠지만, 좀 더 대기업을 포함해서 경제 전체 범위 내에서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구심점으로서 그 역할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좌장: 이형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일재단이 지금까지 걸어온 30년의 역사를 제1단계, 제2단계 그리고 제3단계 각 10년마다 구분해서 매우 정밀한 분석 하에 그동안의 사업협력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는 제4단계 미래의 한일 간의 협력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제언도 해 주셨습니다.

한일재단, 일한재단이 설립된 것이 30년 전인 1992년인데 그 무렵 일본은 경제의 정체가 막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또 한국은 급성장을 한 시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국의 국민대학교 이원덕 교수님은 양국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바뀌었다고 하셨고, 도쿄대학의 키미야 타다시(木宮 正史) 교수님은 비대칭적인 관계에서 대칭적인 관계, 시메트릭한 관계로 변했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예를 들어 OECD 데이터를 보면 평균임금은 지금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상승했고 구매력으로 환산한 1인당 GDP 역시 한국이 지금도 위입니다. 구매력 평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1인당 GDP만 보더라도 조금 있으면 일본이 한국보다 밑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국의 경제력 혹은 경쟁력 격차가 기존과 같은 협력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협력을 검토하고 모색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발표입니다. 이구치 카즈히로 SJC 이사장님입니다. 한국미쓰이물산 대표이사님이시기도 합니다. 한국 경험은 두 번 하신 것이죠. 미쓰이물산에서 또 연료부장도 하셨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치 카즈히로(井口 和容)
SJC 이사장 겸 한국미쓰이물산(주) 대표이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재팬클럽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국미쓰이물산의 이구치입니다.

아까 코디네이터 분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시즈오카 출신입니다. 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한국 고객분들께 어디 출신이냐고 질문을 받고 시즈오카현이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모르셔서 '후지산이 있는 곳입니다'라고 하면 금방 알아주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다만 제가 태어난 곳은 하마마쓰라고 하는 서쪽 끝에 있는 곳입니다. 하마마쓰에서 보이는 후지산의 크기는 도쿄에서 보이는 후지산과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시즈오카현은 옆으로 긴 현입니다. 후지산이 가까이에서 보이는 경치라든지 이즈에서 스루가만을 끼고 보는 후지산의 경치는 매우 훌륭하니까 기회가 되시면 시즈오카현에 오시기 바랍니다. 홍보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한일 상호교류의 증진'이라고 하는 제2세션의 주제에 맞게 경제계에서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슬라이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한일 상호교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 지금까지의 흐름과 현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계에서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관련해서 서울재팬클럽의 활동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관련된 데이터가 있으니 그걸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일본의 언론 NPO 조직과 한국의 동아시아연구회, 두 곳의 양국 조직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한일 공동 여론조사입니다.

그 중에 상대국가에 대한 인상을 작년까지의 10년간의 데이터로 나타낸 것입니다. 파란색 진한 선이 있는데요. 한국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는 일본의 여론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진한 오렌지 컬러 선은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어느 쪽인가 하면 좀 호감이라는 한국의 답변 추이입니다.

그리고 연한 하늘색은 한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 약간 좋지 않다는 일본 여론의 추이이고, 그리고 연한 오렌지 컬러는 일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 약간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한국 여론의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에 걸쳐서 한국에서의 일본에 대한 안 좋은 인상, 나쁜 인상은 20%p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상의 비율은 5% 정도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2019년에 일본에 의한 일부 반도체 관련 소재의 수출관리 규제 강화 그리고 그에 부응해서 한국에서 발생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아마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2019년도 데이터는 일본에 의한 수출관리 규제강화 발표 전인 5월에 실시된 설문 조사입니다. 그래서 2019년 데이터에는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2021년부터 2022년의 움직임입니다. 양국 모두 좋지 않은 인상이 줄어들고 좋다고 하는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적하셨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확실하게 상대에 대한 인상이 한때 악화되었던 것이 지금 다시 원상 복귀되고 있는 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동 여론조사는 2013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양국 모두 상대국에 대해 호감과 비호감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까운 미래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가 비호감도를 더 상회할 것이다, 즉 그래프가 교차되기를 부디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일본정부관광국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양국 간의 2011년 이후의 도항자 수 데이터 추이입니다.

아까 이형오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데이터의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3단계 중에 추이를 좀 더 알기 쉽게 데이터를 막대그래프로 바꾼 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란색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렌지 컬러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방문자 수입니다.

2019년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방문한 방문객 수는 매우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서도 아마도 이겠습니다만 일본에 의한 수출 규제강화, 한국에서 있었던 '노재팬'이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은 명백하게 코로나로 인한 사전 방역 조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이후에 양국 간의 도항자 즉, 양국을 왕래하는 왕래자의 수는 방역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목하실 만한 건 2023년의 데이터입니다. 이 그래프의 2023년은 1월과 2월 두 달에 대해서만 추산한 내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방문자 수는 100만 명을 넘었고 작년 1년간의 방문객 수를 불과 두 달 만에 전부 상회했습니다. 실은 여기에 있는 최신 3월 데이터도 제가 별도로 갖고 있는데요. 3개월간의 누계 수치는 16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관리 규제강화 이후 코로나 방역이 도입되기 전까지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월간 방문자 수 혹은 여론이 조금 악화되었을 때, 이 사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2.5배 정도에 달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방문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3월 최신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3월까지 포함하면 3개월간의 누계 수치는 64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1년간 한국 방문자 수를 불과 3개월 만에 상회했습니다. 양국 간의 인적 왕래는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그래프는 일본학생지원기구가 발표한 양국간 유학생 추이 데이터입니다. 파란색은 한국에 있는 일본인 유학생 수이고, 오렌지 컬러는 일본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 수입니다.

2020년에는 일본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 수에 대해서만 숫자가 발표가 되어 있고요. 한국에 있는 유학생 수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파란색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0년에 한국에 있는 일본인 유학생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그 전년부터 시작되었던 한국에서의 '노재팬'의 움직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일본인의 한국 외를 포함한 해외유학생의 전체 합계 인원 수가 그 전년도인 107,000명에서 2020년은 1,500명으로 크게 줄어서 순식간에 98%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에 한국에 있는 일본인 유학생 수 이상으로 실은 해외 전체에서의 유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한국에 있는 일본인 유학생 수의 큰 폭의 감소는 코로나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하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 수는요, 한국에 있는 일본 유학생 수보다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의 감소세가 어느 정도 멈춘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양국의 유학생 수에 대해서는 한일관계의 영향보다는 예를 들면 양국 학생들의 해외유학 지양이나 양국의 대학이 다른 나라 대학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매력적인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양국의 대학이 각국의 학생들에게 또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보다 매력적인 대학이 되어서 양국의 유학생이 더욱더 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도 앞서 소개가 있었던 데이터와 중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양국 무역액의 추입니다. 파란색이 일본에서 봤을 때 한국에 대한 수출금액, 오렌지색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대일 수출 금액입니다.

대한 수출금액은 일본이 일본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해서 한국에서 '노재팬' 움직임이 있었던 2019년, 2020년 약간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도 그 내역을 잘 살펴보면 생산용 기계의 감소가 크고 전자부품이라든지 소비재에 대한 감소세는 생산용 기계의 감소세에 비하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일본계 기업의 한국에서의 판매력이 줄었다는 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영향을 받는 부분은 기계가 좀 더 컸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본 대일 수출은 2019년에 크게 감소됐습니다만 이 해에는 한국 전체의 수출량이 전체적으로 10% 감소했던 해입니다. 오히려 대일 수출량은 7% 감소에 그쳤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 2021년, 2022년 이때 무역액은 모두 증가했고, 한일 간의 무역은 수출 규제강화, 코로나가 그다지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순조롭게 추이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길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표는 한국에서의 국가별 직접투자 상위 10위의 금액과 점유율입니다. 데이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962년부터 2022년까지의 직접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본은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비중은 13.3%로 미국과의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아서 일정 정도의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오른쪽 그래프는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액의 추이입니다. 2012년에 정점을 찍었고 일본에 의한 직접투자는 감소세에 있습니다. 2021년은 전년부터 증가를 해서 2020년에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반대 패턴입니다. 왼쪽 표는 일본에서의 국가별 직접투자 유입 상위 10개국의 표입니다. 데이터는 일본이 발표한 2021년 말 현재 금액입니다. 한국의 직접투자 잔고는 9위로 비중도 3.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위인 미국과는 큰 격차가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한국의 대일 직접 투자의 추이입니다. 큰 폭으로 증가된 부분을 확인할 수 없고 2016년 이후는 조금씩 증가세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몇 가지 데이터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다음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 충분히 여러분께서도 인식을 하고 계신 부분일 것 같습니다만 첫 번째가 일본에 의한 수출관리 규제강화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일어난 '노재팬' 운동이 있어서 한일 양국의 국민들 간의 상호교류에 영향을 미쳐 상대 국가에 대한 인상이 악화되었다는 부분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현재는 원상복귀 되었다고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국의 외교관계나 여론에서 매우 어려웠던 시기에도 한일 양국의 비즈니스 자체는 그다지 큰 악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양국 경제인의 노력과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해온 신뢰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3년은 한일 양국의 외교면에서 매우 큰 진전이 있었던 한 해입니다. 양국의 상호교류 확대와 함께 환경이 더욱 개선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한일 상호교류에서 경제계가 어떤 부분에서 기여를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슬라이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상호교류 촉진을 위해서 재계에서 할 수 있는 기여, 공헌 이는 한일 양국의 상호교류 확대와 제3국 공동진출을 포함한 한일 양국의 기업 간 협업 확대를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간의 비즈니스 혹은 양국 기업에 의한 협업이 확대되면 될수록 양국에 있어서의 경제 기여, 사회 기여가 매우 자연스럽게 확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기여에는 양국에서의 고용의 확대, 그리고 비즈니스 인재교류와 확대, 기술교류의 확대 이 부분도 당연히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기여, 사회 공헌 속에는 비즈니스 인재 외에 유학생을 포함해 국민 차원에서의 신뢰성의 구축 이런 것들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국 기업에 의한 경제계에 대한 기여가 확대된다면 양국의 활동은 더욱더 개선되고, 자연스럽게 상호교류도 확대되고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져 이것이 한일 간의 비즈니스, 양국 기업의 협업으로 확대되는 이러한 선순환이 자연스럽게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양국 국민의 상호교류 촉진을 위해서 한일 간의 비즈니스를 확대를 하자고 까지는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비즈니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적절한 사업기회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한일 비즈니스의 확대 그리고 양국 기업에 의한 제3국을 포함한 협업 확대를 위해서 다섯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계시는 대부분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많은 분들께서 이미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여러 곳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일 양국에 의한 비즈니스 찬스에 대해서 재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어제 오늘 매우 많이 등장하고 있는 공급망입니다. 한일 양국에는 반도체를 비롯해 각국이 서로 다른 강점을 갖고 있는 상품의 공급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국은 매우 가까운 이웃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위치한 국가가 공급망을 재구축 즉,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에서는 양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글로벌에 대한 더 높은 차원의 기여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화학제품이라든지 철강제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협력업체로서, 공급망으로서의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생산과 공급의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국가 간에 서로가 보완하는 형태로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양국의 경쟁력의 유지 강화가 가능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탄소 중립입니다.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은 양국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과 일본은 필요한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회수되는 이산화탄소를 저류할 수 있는 저장소라든지 태양광과 풍력 등 최신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양국의 과제는 놀라울 만큼 매우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부 업계, 기업에서는 제3국에서의 관련 사업에 대한 공동투자 그리고 양국의 저탄소 사회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거나, 이 때 양국에서 물류를 최적화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국이 이웃해 있는 것이 큰 비즈니스 찬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일 소비문화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양국 간에는 서로의 국가에 대한 소비문화가 크게 인기가 있습니다. K팝이 일본에서 인기가 있고 한국에서도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분이 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일 양국의 소비문화, 상대 국가에서의 서로에 대한 인기는 아직 더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큰 비즈니스 찬스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비문화와 관련된 비즈니스 확대는 양국 국민의 상호교류를 더욱 직접적으로 촉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사업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국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외국기업의 진출에서 과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진출한 기업의 애로사항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경제인들 입장에서는 정부와 정부 관계자에게 계속해서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환경의 개선은 새로운 투자를 유입시키고 새로운 고용을 포함한 사회공헌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회공헌입니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공헌은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서 이미 충분히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을 길게 본다면 기업가치의 향상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으로도 이어지고 있고 저희가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다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 대해서는 주한 일본 기업은 독자적인 활동 뿐만이 아니라 서울재팬클럽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울재팬클럽의 활동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재팬클럽은 1997년에 3개 일본계 기관이 통합해서 출범한 일본계 공동체입니다. 법인은 약 350개사, 개인회원 수는 약 1,300명 규모입니다. 활동 목적은 한일 양국의 친선, 한국 사회에 대한 공헌, 한일 양국 경제관계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지원입니다.

개인활동 지원 중에는 한일교류에 대한 지원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활동 중에는 한국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출한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3월에 노동, 세무, 금융, 지적재산, 환경, 보건위생과 관련된 52개 건의사항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는 각 항목별로 검토해서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 적절하게 저희를 팔로우 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재팬클럽이 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각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생략하고, 서울재팬클럽은 기부활동이라든지 사회공헌 활동, 일본계 기업 CEO에 의한 한국 대학에서의 강연회 등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서울재팬클럽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한일문화교류 지원 활동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서울재팬클럽에서는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그리고 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함께 회원기업에 의한 인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인턴십 실시 프로그램은 작년까지 총 176개사, 합계 310명의 인턴을 수용했고 이 중 100명 이상이 그 이후 일본계 기업에 취업했다고 합니다. 서울재팬클럽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사회공헌 활동이라든지 문화교류 지원 활동 그리고 인턴 수용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소개를 드렸던 서울재팬클럽에서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주한 일본계 기업이 개별적으로 각각 하고 있는 것도 다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 이후에도 주한 일본계 기업으로서 경제 기여 그리고 한일 비즈니스의 확대 그리고 사회 기여, 사회 공헌을 포함해서 여기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고, 그 결과 한일 양국의 상호교류 증진으로 이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장: 이구치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일본 기업을 대표해서 어떻게 상호교류를 확대해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한일 상호교류를 어떻게 강화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주제 하에 네 분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희망적인 발표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장에 계신 여러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께 사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후에 공동성명 채택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세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시 40분에는 이 세션을 그때까지는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네 분 발표자분들이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해서요. 3시 반에는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질문 또는 제언, 코멘트가 있다면 각각 3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국 측 발표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우
월드 FTA포럼 회장



저는 앉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국적 FTA포럼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창우라고 하고요. 대한민국 국회세경포럼의 FTA 일자리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한국대표로 RCEP을 잘 활용하자, 한일 FTA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사람인데, 먼저 앞에 계신 발표자분들께서 시즈오카현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대한민국 충청북도 출신입니다. 바다가 없는 내륙 도시지만 아름다운 도시니까 일본 측에서 한번 많이 와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충북 홍보대사라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분 모두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FTA가 하나도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적으로 박상준 교수님께 질문 한 두 가지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청중들께서는요,

151페이지 그 다음에 160페이지, 117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선 117페이지부터 보시죠.

대표적으로 박상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RCEP 활용을 양국이 촉진하자는 제안입니다. 그 RCEP이 한중일 세 나라, 아세안 열 나라, 호주, 뉴질랜드 열다섯 나라, 23억 시장이 작년에 발효가 됐는데 지금 서로 경쟁이 붙었습니다. 사실은 한중일 경쟁인데요.

우리 한일 간에는 서로 협조해서 경쟁뿐만 아니라 협조도 같이 하자 즉,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RCEP 14조에 중소기업 조항이 있는데 여기 중소기업들은 FTA에 약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그 협정문 내용입니다. 정보도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급망에도 참여시켜 줘야 되고 수출 컨설팅도 해주고 모범 사례가 있으면 서로 공유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1년 됐지만 아직 이런 쪽으로 안 하고 경쟁만 하고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협조를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구요.

그렇게 되면 아까 박상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한일 간에 관광객이 오셔서 양쪽을 따로 가는 것보다는 세트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청년들이 일본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자연히 열릴 수가 있고요, FTA협정문에서. 그 다음에 제3국 진출도 하고 특히 공급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 우선 RCEP을 활성화시키자, 서로 공동으로 추진하자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일 간에는 메가FTA만 많이 합니다. RCEP 있죠, CPTPP 있죠, IPF 있죠, FTA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여러 나라가 하니까 우리 두 나라의 맞춤 FTA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FTA를 하자. 물론 여기는 찬반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무역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덟 가지 특징만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우선 한일 간에 FTA가 되면은 기술 문제든지 소부장 문제라든지 원부자재 공급망에 서로 협력이 가능합니다. 서로 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원래 한일 FTA가 시작 하다가 중단된 주요 이유가 농업문제 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일본도 많이 농업을 개방하시고 또 우리도 선진화 됐기 때문에 양쪽 농업에 서로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일본 인구가 1억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 시장의 두 배입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시장이 커지는 거니까 교류 이상으로 여러 가지 교역에서도 이점이 있겠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RCEP 시장과 우리나라가 CPTPP 가입을 하면 일본이 주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도 가입을 했는데 한국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3국 공동진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CPTPP에 한국이 가입하는데 일본이 좀 전향적으로 오케이 좀 해달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청년세대들이 아까 취업도 하고 그랬는데, 교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지금 G7에 들어갈려고 합니다. G8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본이 좀 협조를 해달라, 이왕이면 FTA를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월이 얼마 정도 흐른 뒤에 한국이 통일될 때 주변 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렇게 서로 협조하다 보면 일본이 좀 협조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한일 FTA도 추진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이따 공동성명에 이 두 가지가 들어갔으면 하는데 우리 박 교수님은 어떠신지요?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좌장: 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을 좀 더 받은 다음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럼 일본 측에서 질문 혹은 의견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시죠.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카하시 코우지(高橋 孝治)
릿쿄대학 특임연구원



네, 감사합니다. 릿쿄대학 연구원 타카하시 코우지입니다. 지금은 객원연구원으로 단국대학교에 재적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마츠무라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자체 외교, 지자체 교류를 연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모델 사례에 비하면 시즈오카현이 하고 있는 것이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일본의 지자체 여러 곳과 자매협정이라든지 외국과 자매 협정을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는 케이스는 협정상의 의무는 있지만 지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이번에 마츠무라 부장님의 발표 중에서 시즈오카현이 예를 들면 한국의 어느 도시와 자매도시 협정을 맺었다는 내용은 없었는데 혹시 그런 곳도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여러 지방을 봤을 때는 자매도시협정을 일단은 체결하고 앞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아까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과 연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시즈오카현이 한국의 어느 도시와도 자매도시 협정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까지 교류를 강화하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 일본의 본가가 있는 지역에서도 여러 외국과 자매도시협정을 하고 교류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대학과 고등학교는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그냥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교류의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역내의 대학, 학교 차원에서의 교류가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 곳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예를 들어 교류 상대국에 좀 더 저렴하게 방문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한다거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 측에서 아까부터 손을 드셨던 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준범
부산일본BIZ 대표



반갑습니다. 부산재팬비즈의 서준범입니다. 저의 생각과 꿈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부산에서 일부러 좀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 서울이긴 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은 서울이 계속 발전하는데 부산과 같은 지역이 계속 죽어가는 것 같아서 부산에 사는 제 입장에서 2015년부터 생각했던 것이 부산이 발전을 하려면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을 포함한 영남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영남을 새의 몸통으로 보고 북쪽으로는 서울 수도권으로, 남쪽으로는 후쿠오카와 큐슈로 양 날개를 펼쳐야 부산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정치와 행정은 일치될 수 없지만 영남과 큐슈의 시민들의

생활과 기업 경제는 동일시 된다고 생각해서 그 두 지역을 합친 생활권 경제를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 실현 방안으로 신문사나 방송국의 언론사 기능과, 그 다음 무역회사인 상사의 역할을 합친 가칭 '영남큐슈비즈니스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에도 많은 일본인이 계신데 부산 시민들과 일본인들이 상시로 만나서 교류하고 비즈니스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부산 재팬 클럽의 줄임말인 '부자클럽'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경성대, 부경대, 동명대 등 대학교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 한 50평 정도의 오프라인 공간과 영남, 큐슈를 합친 개념의 네이버나 야후 재팬 같은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되는 것은 양쪽 지역의 상공회의소, 그 다음 총경영자협회 그 다음 각 산업 분야의 협회들이 서로 비즈니스를 해서 양쪽 지역의 사람, 자본, 기술을 합쳐서 영남에 있는 지역은 큐슈를 통해서 일본 전역으로 동남아로 진출을 하고, 큐슈에 있는 기업들은 영남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로 진출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업이 그렇게 한다면 나머지 음악, 미술, 공연 같은 것도 그렇게 공동으로 하게 되고 양쪽 지역에 전시회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에 비해서 그렇게 전시회가 활발하게 안 되기 때문에 양쪽 지역의 전시회가 같이 1년간 계획해서 공동 개최를 하게 되면 전시회를 통해서 그 산업도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관련은, 한국에는 10개의 야구 구단이 있고 일본에 12개 야구 구단이 있는데 제일 가까운 부산의 사직 야구장과 일본의 후쿠오카 야구장을 이용해서 시즌 중에 한 게임씩만 양쪽 지역에서 번갈아 가면서 만약에 시합을 한다면 미국 메이저리그만큼은 안 되겠지마는 양쪽 지역에 야구 흥행이 되면 산업과 경제와 관광도 저는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만들고 싶은 입장인데 일본하고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이렇게 잘 되려면 영남, 큐슈가 이렇게 된다면, 전라도는 중국의 상하이 지역과, 충청도는 중국의 칭타오 지역과, 강원도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리나라 각 지역들이 서울만 바라보지 말고 인근 국가의 인근 지역하고 동일한 생활권, 경제권을 만들어서 공존, 공생하면서 점점 발전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실에도 이 제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아무 답변이 없이 그냥 기각이 되었고, 제가 2015년부터 8년 동안 부산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한테 이런 생각을 전하고 좀 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기 자본으로 아까 말한 두 개 센터와 클럽을 3억 원 정도가 있으면 오프라인 사이트를 만들 것 같은데 그 3억 원이 제가 없기 때문에 회장이신 삼양홀딩스 회장님께서 3억 원 정도를 좀 지원해 주시면 올해에 이걸 만들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영남과 큐슈가 한일관계를 새로이 창조하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네 감사합니다. 일본 측에서 질문 없으실까요? 네 아소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아소 유타카(麻生 泰)
아소시멘트 회장



아소 시멘트의 아소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큰 용단을 내리셔서 '미래를 향해 생각하자'고 하셨고 기시다 총리님도 거기에 호응하는 매우 큰 셔틀외교를 재개했습니다.

중요한 시기를 백업하는 우리 경제계로서 '정말 다행이다, 이제 이런 비즈니스를 양국 간에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양 정상의 지금의 기세를 최근에 자주 쓰는 용어로 모멘텀을 잘 만들어가야 됩니다.

경제계가 그렇게 하는 가운데 지금 이형오 교수님 또 박 교수님께서 대단히 학술적인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런 사례가 있다, 이런 잠재성이 서로 간에 협력하면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금은 드러나지 않은 잠재성을 여러 기회의 차원에서 박상준 교수님과 이형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경제계 차원에서 계속 할 테니까요. 학술적인 그런 근거를 제시, 발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기세를 몰아서 한일 양국의 관계가 다시 되돌아가지 않도록, 2027년쯤 되어서 2023년에 그걸 우리가 했었어야 됐는데 라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뭔가 아카데믹한 정보를 앞으로 발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발언자 분께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준 교수님 한일 FTA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와세다대학 교수

한국 분 두 분 말씀하신 것은 질문이었다기보다는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대답이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RCEP하고 FTA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RCEP은 지금 여전히 일본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RCEP은 또 중국이 관련이 되어 있고 미중 마찰 때문에 한국이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이런 말은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도 싶긴 하지만 한국기업이나 일본기업도 중국 시장은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RCEP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FTA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좀 더 적극적이었는데 일본에서 소극적으로 나와서 그러다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결국 디스커션조차도 멈췄는데 여전히 FTA도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회장단의 공동성명에 넣었으면 하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아마 회장단께서 미리 성명서에 대해 서로 논의하신 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아마 경제계에서 전반적으로, 아니면 학계에서는 특히 대부분 서포트를 하시죠, 이런 FTA 같은 것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 있고 추진할 수 있고 노력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신 질문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산재팬비즈니스클럽이라든가 부자클럽이라든가 하신 말씀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방 소멸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저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의견이라고는 생각하지만은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듯이 벤처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서 추진되기까지는 또 그 나름의 동력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굉장히 유망해 보이고 저도 지지하고 싶은 사업이지만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데는 돌파해야 할 많은 난관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 소멸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이런 관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제 순서니까 그냥 다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소 상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학자인 저희들은 안정적인 국가관계 속에서 기업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기업에게도 좋지만 결국에는 국가경제에 좋고 노동자에게도 좋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을 하고 또 그래서 학자로서는 그런 발신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도 한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저희가 이 모임에서는 다들 한일 잘해보자 이렇게 하지만은 이 밖을 나가면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나빠지는 과정에서 많은 감정을 다쳤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국교 단절하자, 왜 일본 물건을 사야 되냐, 여전히 그런 목소리도 들립니다. '노재팬'이 '예스재팬'이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서로 다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안식년 동안 한국에 있었고 또 그 전에 일본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관계가 나빠지면서 저는 경계인이니까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일본 내 학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학생들의 조국인 일본도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저는 경계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일관계를 좋게 하자는 일본의 모임이나 한일관계를 좋게 하자는 한국의 모임도 자주 나갑니다.

나가기는 하는데 일본에서는 지난 3, 4년간 항상 그런 모임에서 결론이 결국에는 한국이 나쁘다는 거예요. 한국을 고쳐야 된다, 한국에서는 똑같이 결론이 일본이 나쁘다는 거예요. 일본을 고쳐야 된다고. 서로 상대를 고칠 수 없는데 상대가 나쁘다고 하고 결론이 나고. 제가 너무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에게는 어떤 잘못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한국에게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도 일본 사람들이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얘기를 일본 사람들로부터 듣고 우리한테는 어떤 잘못이 있었을까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또 지난 3~4년간의 일본 사회도 한국인들은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하는 것을 돌아보고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일본은 무엇을 돌아봐야 되나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픈 부분, 자신의 아픈 부분은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으로서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인 당신들 이런 거 잘못됐으니까 고치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학자로서 한국에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피해자고 옳다고 믿지만 우리한테도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도 알면서 돌아보면서 일본을 대해야 또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한국에서는 하고 싶기 때문에, 반대로 제가 일본 분들에게 또 일본 친구들이나 저의 제자들에게 항상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반대로 일본인이니까 일본에서 한국이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우리 일본인들은 과연 모든 것에 있어서 정당할까, 우리는 옳기만 한 것일까 하는 것을 일본도 한번 돌아보고 얘기해 보고 한국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는 얘기를 또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좌장: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츠무라 부장님 지자체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츠무라 아키히로 (松村 昭宏)
시즈오카현 지역외교담당 부장

릿쿄대학, 단국대학에서 지금 와 계신 다카하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상세하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매도시 협정이 있는가 하는 건데요.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카하시 선생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적당히

자매도시 제휴를 하고 의무적인 수만 채우는 다른 지자체는 많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지사를 포함해서 그렇게 의미 없는 것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MOU를 체결하고 있는 곳은 중국, 몽골, 한국 정도인데요.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의 한 지역 또 제주특별자치도와는 분야별 협정이라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학생교류라든지 경제, 투자 유치라든지 주제를 한정 지은 MOU를 체결해서 이것을 꼼꼼하고 착실하게 기업 간에는 기업 매칭이라든지 학생이나 학교 간의 교류라든지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상당히 예전부터 시즈오카 현에서는 착실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이점이 있는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현지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먼저 부응하고 화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매칭이라든지, 학생 교류라든지, 그 학생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알게 된 분이 10년, 20년이 지나서도 계속 시즈오카 현을 또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에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2020년 1월에 학생 간 교류로 충청남도에 있는 단국대학교와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실은 일본의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시즈오카의 기업은 아니고 도쿄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좌장: 그러면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지만 마지막 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손을 드신 분 중에서 한 분의 질문을 받고, 그리고 발표자의 최종 발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세 분 연속해서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인집
어니컴(주) 회장



어니컴의 양인집이라고 합니다. 저는 박상준 교수님과 마츠무라 부장님께 질문을 한 가지씩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준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은, 오늘 발표 마지막 슬라이드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말씀에서 빠뜨린 것 같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본 중소기업의 후계자 문제를 언급하시고 경영자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슬라이드를 보면, 맨 마지막에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M&A를 서포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가능할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츠무라 부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시즈오카 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본에서 식음료기업의 경우 처음으로 신제품을 출시할 때 반드시 시즈오카 현에서 시범 판매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에 47개 지자체가 있는데 시즈오카 현의 반응이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주에서 4주 정도의 시범 세일즈를 해서 거기서 성공을 하면 대량 생산해서 전국 전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즈오카 현이 어떻게 해서 이런 평가를 받게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늘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장: 감사합니다. 다음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마무라 마사하루 (今村 正治)
사가여자단기대학



큐슈의 사가여자단기대학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일본 대학 참가자는 저밖에 없고, 한국은 대학 관계자분이 많이 오셨다는 부분이 저는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 질문으로는 역시 대학의 역할, 대학에 기대되는 바에 대해서 박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젊은이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일 간의 상호이해 또는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공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K팝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로의 이해로 이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K팝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들의 관심이 좀 더 깊이 있게, 한국의 역사·문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지금은 아닙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 한국 젊은이들도 일본의 문화·역사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교육 문제 그리고 대학의 역할이 크게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일본 관광객은 한국에 와도 에스테틱, 마사지, 쇼핑, 맛집만 간다고 합니다.

최근 제가 주목하고 있는 개념으로 '에스피엔오피 스페셜 릴레이저스'라는 스피리츄얼하지만 종교는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국민의 3분의 1, 4분의 1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 가장 큰 장소가 바로 아시아고 일본이고 한국이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인이 더 일본 혹은 한국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역시 한일 젊은이들이 서로의 나라를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기능으로서 초중고생의 교류도 있을 것이고 대학에 좀 더 깊이 연계하거나 또는 학습하는 방법, 예를 들면 교환 유학이라든지 그런 차원을 넘어서 공동으로 좀 더 큰 규모로 서로를 배우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을 경제인 여러분들께 좀 크게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박상준 선생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시 그 부분을 유학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본에 한국인 유학생 수는 많은데요. 실은 일본 유학생 중 한국에서 유학하는 학생은 몇 퍼센트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한국으로 유학하는 학생이 꽤 있지만 아직 많지 않고 존재감이 크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대학에 가서 한국을 배우고 싶다, 일본을 배우고 싶다 하는 젊은이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은 대학 차원에서는 반성해야 할 부분이고 이것을 경제인 여러분 혹은 양국에서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 번 박상준 선생님 혹은 마츠무라 부장님 포함해서 대학에 대한 기대 혹은 희망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그러면 한 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사)한국우량제품진흥협회 고문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마츠무라 부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우량제품진흥협회의 상임고문 이동수입니다.

앞서 발표 때 말씀하셨던 시즈오카현 지역외교의 내용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충청남도와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협회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를 받아서 올해 10월에 3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일본의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총 350회 정도 한국 관광물산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양국의 정치적인 문제,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일본의 백화점에서는 물산전 개최를 거부를 했습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가운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시작할 수 있도록 시즈오카 현의 유명 백화점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소개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감사합니다. 끝으로 네 분의 발언자 분들께 죄송합니다만 한 분당 3분 이내에 질문에 대한 답변 혹은 총괄하는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와세다대학 교수

아까 제가 쓸 수 있는 시간 이상으로 다 썼다고 생각해서 정말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목을 하셔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인집 사장님은 진로재팬 사장님이셨는데 어제 사장님 얘기를 저희 식사 시간에 했습니다.

일본의 좋은 사케가 굉장히 많은데 일본 진로재팬의 세계적인 유통망을 이용해서 일본의 사케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알리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일협력에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를 만드신 분인데 M&A에 대해서 길게는 말할 수 없지만, 우선은 일본과 한국의 M&A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M&A를 하러 갔을 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노하게 만들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중재해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M&A를 하더라도 융자가 국내에서의 파이낸스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하는 활동에 대한 파이낸스에서도 좀 더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 그건 나중에 양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경제학자보다는 교육자로서의 고민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마츠무라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츠무라 아키히로 (松村 昭宏)
시즈오카현 지역외교담당 부장

질문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 판매 시도에 대해서는 주로 시즈오카 현은 일본 중심,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인디케이터라든지 지표가 일본의 47개 도도부현 중 10위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구가 360만 명이어서 지방 도시로 봤을 때는 이바라키 현에 이어 두 번째로 큽니다. 그래서 매우 샘플링하기 좋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현도 예전에는 샘플 타깃이 되었었는데요. 최근 히로시마 현과 시즈오카 현은 식료품 수입에 있어서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지역 간 교류의 원천은 사람과 사람의 교류이고 특히 오늘 주제처럼 젊은 분들에 의한 교류, 이것의

전제는 고등학생, 대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협정 속에서 학교 간 교류에 앞으로 더욱 더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광물산전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어떤 형태로 가능한지, 최근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시즈오카에는 맛있는 게 많습니다. 미식 그리고 구루메도 많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오 선생님.

이형오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저도 대학에 있습니다마는 대학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참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수업에서도 이런 얘기 하는데 사람들은 되게 선동에 약하거든요. 그런데 정치가들은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한일관계도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학교수들이 보수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나서서 반박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일 간에 있어서 대학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나서는 경우를 지난 몇 년간을 보면 대부분 비판적인 사람들이 목소리가 큰 부분이 많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저는 경영학 분야에 있습니다마는 경영학의 각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학회 차원에서 교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많은 경영학 분야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국제교류를 하려고 했을 때 다른 나라하고는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이제 일본과 한국 사이에 국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국제경영학회 회장을 맡았습니다마는 일본 쪽에도 국제비즈니스연구학회, 일본의 국제경영학회죠. 사실 오랫동안 저희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를 이어 오고 있고요. 경영사학회 분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인사조직학회로, 지금은 끊어졌습니다마는 그런 교류가 이어져 왔고, 사실은 목소리는 내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한국의 학계 그 다음 또 일본의 학계 사이에 교류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그 교류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한일 기업 간의 협력에 관련된 연구들을 좀 더 아카데믹 차원에서 연구해서 발신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한국기업과 일본기업 간의 협력 사례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례 연구를 통해서 많이 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한 경우 예를 하나 들어보면 HLDS라는 회사를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히타치하고 LG전자의 ODD 쪽의 사업인데 이런 사례를 보듯이 사실 한국기업과 일본기업들은 아주 참 궁합이 잘 맞는다 할까요. 실제로 한국, 일본기업들이 서로 보완적 관계를 가지면서 협력하게 되면 정말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례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실제로 그 사례들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좀 더 많이 연구를 해보고 싶고요. 단 이런 연구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까지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이런 연구도 좀 더 많아지고 좀 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한일경상학회 회장을 내년과 후년 맡게 되는데 사실 한일경상학회가 이런 쪽의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학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학회 차원에서 이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정치적 상황이 좋아지면 좀 더 이런 것을 대중적으로도 발신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좌장: 감사합니다. 그럼 이구치 이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치 카즈히로(井口 和容)
SJC 이사장 겸 한국미쓰이물산(주) 대표이사

저는 먼저 첫 번째로 부산재팬클럽이라고 하는, 아까 질문하시면서 나왔는데요. 실은 부산에는 부산일본인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부산일본인회는 상공회의 기능도 갖고 있어서 서울재팬클럽이 하고 있는 상공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부산 인근의 일본계 기업이 줄어들기도 하고 주재원도 지금 한국인이 대체를 하고 있는 등 회원 수가 줄어서 그 활동이 개인 활동 지원 쪽에 좀 더 치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 개선의 흐름 속에서 한일 간의 비즈니스가 다시 늘고 있고 부산은 물류와 관련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물류 기능도 상당히 일본에 비해서 매우 큰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미쓰이라고 하는 상사에 있습니다. 미쓰이물산 뿐만이 아니라 최근의 흐름으로서 봤을 때에는 일본 시장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비즈니스도 아직도 가능성이 더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좀 기대를 걸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계 기업의 한 회사로서 그리고 서울재팬클럽의 이사장으로서 향후 한일 간의 경제 연계를 심화시키고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한 진행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매우 뜻 깊은 논의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준 교수님 그리고 마츠무라 부장님, 이형오 교수님, 이구치 이사장님 이 네 분의 발표자분들께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세션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사회: 다시 한 번 이데이시 좌장님과 네 분의 발표자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4시에 폐회식을 앞두고 단상을 잠깐 정리하고 잠깐의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발표 말씀 들으면서 저희들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55회째 회의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일본의 동경, 한국의 서울을 중심으로 회의가 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기회가 닿으면 지방에서도 회의를 여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쉽게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로 일본 대표단들께서도 도착하신 15일날 특히, 윤석열 대통령님을 예방하고 또 박진 외교부장관과 면담하는 등의 공식일정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둘 때 지방으로 가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특히 박상준 교수님, 이형오 교수님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 주셨는데 한국에서도 대학의 여러 교수님들이 최근의 한일관계에 대해서 조금 탐탁지 않아하시는 반대 목소리를 성명서 형태로 내는 복잡한 정황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지방에서 하게 될 때, 공식적인 회의에 진중한 분위기 속에서 질의응답이 오가는 가운데 농담처럼 여겨지는 가벼운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방에서 뭐 고향이 여러 군데 있으시니까요. 오늘 시즈오카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가와카츠 지사가 한국 방문하셨을 때 한국 측 단장이신 김윤 회장께서 오찬을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훌륭한 후지산이 보이는 훌륭한 공항, 문화 탐방도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 시즈오카에서 기업의 시찰 등도 하면 좋지 않겠냐는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염두에 두길 바라는데, 농담같이 들리시겠지만 여기 SJC 이구치 이사장님께서도 시즈오카 출신이시고, 마츠무라 부장님도 서울사무소장 역임하셨고 다카시마 교토 사무소장님 계시는데 시즈오카 그렇게 선전하고 싶으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 시즈오카산 와사비라든가 차라든가 하다못해 후지산 사진이 잘 나와 있는 우편엽서라도 한번 배포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 단상 정리를 하고 폐회식 준비를 하겠습니다. 커피를 한 잔 드시는 사이에 공동성명안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4시까지 쉬시고 다시 2~3분 전에는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집중력 유지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4시가 되었으므로 사사키 미키오 단장님, 김윤 단장님 두 분 단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많은 언론이 오셔서 사진 촬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30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55회 한일, 일한경제인회의 폐회식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폐회식은 단상에 오르신 김윤 한국 측 단장님, 사사키 미키오 일본 측 단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김윤 단장님 부탁 올립니다.

김윤
한국 측 대표단 단장

이틀에 걸쳐서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폐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양측에서 다 함께 공동성명안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사무국에서 발표 후에 여러분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국 사무국에서 공동성명안을 각각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한국 측 단장이신 김윤 회장께서 언급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사키 미키오 단장님을 필두로 일본 측 대표단과 김윤 회장님을 좌장으로 하는 한국 측 대표단이 지금 낭독해 올리는 공동성명안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그 내용과 취지 그리고 표현을 검토하여 조율한 결과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먼저 한국어본을 낭독하고 일측 우치다 전무이사님께서 일어본을 낭독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동성명안 한국어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라는 제목 하에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를 2023년 5월 16일, 17일 이틀에 걸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개최하였으며 한국 측에서는 김윤 단장 등 164명,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75명이 참가했다.

1969년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개최해 왔다. 기념비적인 제55회째를 맞이하여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4년 만에 대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참석한 양국 경제인들은 서로서로 재회를 반겼다.

지난 3월에 양자 방문으로서는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정부 간 대화가 진전되면서 셔틀외교 재개와 함께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한일 양국 경제인은 감사하며 크게 환영한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요한 이웃나라인 한일의 제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는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를 주제로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미래를 응시한 양국 관계 유지, 발전을 위해 경제인이 먼저 움직이고, 움직이게 만든다는 제언을 바탕으로 기탄없는 의견을 나누었으며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첫째, 한일 경제연계 확대
한일관계 개선을 향한 움직임이 확실해지면서 상호 인적왕래도 활발해졌다. 오랫동안 바라왔던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크게 환영한다. 한일 경제인은 연계 협력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메리트, 시너지를 새삼 확인하고, 제3국에서의 공동 프로젝트, 디지털, 그린 등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한일, 일한경제협회와 재단은 경제협력 네트워크가 보다 끈끈해지도록 노력하고 협업 확대에 공헌한다.
둘째, 상호교류의 촉진
개선이 진행되는 한일관계를 지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일 경제인은 경제는 물론 인재, 문화, 지역 간 등 폭넓은 교류를 통해 한층 더 신뢰를 쌓고 파트너십이 보다 더 긴밀해지도록 노력한다.

셋째, 세계박람회의 성공을 위한 협력
2025년 일본국제박람회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의 성공에 협력하고, 2030년 세계박람회 엑스포의 한국 부산에서의 개최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 그리고 다음 제56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24년에 일본에서 개최한다.

2023년 5월 17일 한국 측 대표단 단장 김윤, 일본 측 대표단 단장 사사키 미키오

이상입니다. 다음 일본 측 낭독이 있겠습니다.

우치다 토시아키 (内田 敏明)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네. 일본어본을 낭독하겠습니다.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안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를 2023년 5월 16일에서 17일 이틀에 걸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개최하였으며,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75명이, 한국 측에서는 김윤 단장 등 164명이 참가했다.

1969년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개최해 왔다. 기념비적인 제 55회째를 맞이하여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4년 만에 대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참석한 양국 경제인들은 서로서로 재회를 반겼다.

지난 3월에 양자 방문으로서는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정부 간 대화가 진전되면서 셔틀외교 재개와 함께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한일 양국 경제에는 감사하며 크게 환영한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요한 이웃나라인 한일의 제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제 55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는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를 주제로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미래를 응시한 양국관계의 유지, 발전을 위해 경제인이 먼저 움직이고, 움직이게 만든다는 제언을 바탕으로 기탄없는 의견을 나누었으며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경제 연계의 확대
한일관계의 개선을 향한 움직임이 확실해지면서 상호 인적왕래도 활발해졌다. 오랫동안 바라왔던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크게 환영한다. 한일 경제인들은 연계협력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메리트, 시너지를 새삼 확인하고 제3국에서의 공동 프로젝트, 디지털, 그린 등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한일, 일한경제협회와 재단은 경제협력 네트워크가 보다 끈끈해지도록 노력하고 협업 확대에 공헌한다.

2. 상호교류의 촉진
개선이 진행되는 한일관계를 지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일경제회의는 경제는 물론 인재, 문화, 지역 간 등 폭넓은 교류를 통해 한층 더 신뢰를 쌓고 파트너십이 보다 긴밀해지도록 노력한다.

3. 세계박람회의 성공을 향한 협력
2025년 일본 국제박람회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의 성공에 협력하고 2030년 세계박람회 엑스포에 한국 부산에서의 개최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 그리고 다음 제56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24년에 일본에서 개최한다.

2023년 5월 17일 일본 측 대표단 단장 사사키 미키오, 한국 측 대표단 단장 김윤

이상입니다.

김윤
한국 측 대표단 단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성명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 공동성명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큰 박수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공동성명은 원안대로 승인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후 진행은 사무국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 김윤 회장님 감사합니다. 또 공동성명안을 의결해 주시고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 사무국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서로 양국의 대표단을 이끌어주신 단장님들로부터 폐회인사 말씀을 경청코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일본 측 단장이신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 올리고자 합니다.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본 측 대표단 단장



여러분 이틀에 걸친 회의에 참석하셔서 매우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제55회 경제인 회의는 양국 정부 간의 대화가 원활히 진행이 되고 관계개선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께서 참석을 해 주시고 솔직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4년 만에 직접 대면한 이 회의도 이렇게 성공리에 끝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일경제협회 김윤 회장님의 도움과 지원과 또 여러분의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한편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더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일 경제인에 의한 연계는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로 저희가 내세웠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중한 지원을 해주셨고, 또 미래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개최하는 데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또 발표를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들 또 좌장으로서 이 회의를 이끌어 주셨던 두 분 좌장, 또한 이 회의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 통역, 사무국 등 이 회의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 제56회 한일경제인회의는 도쿄에서 개최됩니다. 도쿄회의장에서 여러분과 다시 한 번 뵐 수 있기를, 또 매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더욱더 충실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간단합니다만 이상으로서 폐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사회: 사사키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 측 단장이신 김윤 회장님의 마지막 폐회인사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윤
한국 측 대표단 단장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제55회째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감하며 양국 대표단, 내외 귀빈, 기조연설자, 발표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반백년이 넘는 우리 경제인회의의 역사 속에서도 금번 회의는 여러 각도에서 각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하자는 양국 간의 공감대가 큰 물줄기를 이루었고, 우리 경제인들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금번 회의 주제처럼 세계경제는 격변하고 있으며, 한일 양국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양국 경제인들이 그간 쌓아온 오랜 신뢰와 교류를 바탕으로 더욱 선도적으로 나서야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이틀간의 토의를 통해서 합의된 공동성명에 담긴 바와 같이 여러 힘든 도전에 양국 경제인들은 힘을 합쳐 대응할 것이며 보다 빠른 속도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루어서 미래 세대에게 희망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오사카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한국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고 2030년 부산 박람회 유치에 일본 측 지지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내년 도쿄에서 다시 뵙기를 고대하면서 모든 참석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양 단장님, 카메라를 위해서

두 분 잠깐 일어나셔서 악수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카메라, 사진 좀 찍어주십시오. 두 분 단장님이 폐회 인사말 마치고 악수하시는 모습 사진에 좀 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예방부터 시작해서 3일간에 걸친 회의를 오늘로서 종결합니다.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회의를 이끌어주신 양 단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내려오시는 두 분 단장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두 분 단장님께서 이미 폐회인사말을 통해서 참가해 주신 양측의 대표단, 좌장, 발표자, 질문자, 그 다음 호텔 측, 기술진 모두에게 감사를 표시하셨습니다.

또한 통역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 말씀 이미 주셨는데 저희들이 2~3일간의 회의를 아주 탄탄한 통역으로 훌륭하게 지탱해 주신, 뒤에 김혜원, 이정남 두 분 국제통역사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보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폐회식 마치고요. 잠시 후 10분 후에 여기 아테네가든에서 양국 단장님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언론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양국 대표단 오늘까지 너무 애쓰셨습니다. 이 자리, 이 시간 이렇게 꽉 차 있는 회의장을 보면서 준비를 해왔던 양국 사무국으로서는 감개무량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리고 내년에 일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Ⅸ. 양국단장 공동기자회견



사회 :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일본 언론도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순차 통역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회의장에서 폐회식을 하면서 공동성명문 안을 승인받아서 공동성명이 발표됐는데 혹시 매스컴에서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는지요? 다 가지고 계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자회견은 4시 반 조금 되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다른 일정상 약 5시 정도에는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보다 많은 언론이 질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간단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질문이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순차 통역이니까 한 번 말씀을 끊으셨다가 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성명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4년 만에 대면 회의였습니다. 의미 있는 회의였던 만큼 가능하다면 경제 분야, 공동성명안에 담긴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기 전에 양측의 단장님이신 한국 측 김윤 단장님, 또 일본 측에 사사키 미키오 단장님으로부터 금번 55회 한일경제인회의를 마친 감회를 청해서 듣고 바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측 김윤 단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김윤
한국 측 대표단 단장

안녕하십니까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윤입니다.

이번 경제인회의는 지난 3월과 5월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한일 간에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경제인 회의인 만큼 양국 언론 등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양국 정상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의 물꼬를 열어주셨고 이제는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양국 경제계가 앞장서서 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양국 경제계는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비즈니스 환경이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 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에 초점을 두고 한일 경제 연계의 확대 및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해 힘써 나가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풍요한 세상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진정으로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상대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일의 보다 밝은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정부 간 대화가 더욱 진전되기를 바라고, 양국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김윤 한국 측 단장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서 사사키 미키오 일본 측 단장님으로부터 소회를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본 측 대표단 단장

일한경제협회 회장 사사키입니다. 여러분, 지난 이틀간에 걸쳐서 회의에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경제인 회의는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예방이 실현이 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된 윤석열 대통령님의 영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님으로부터는 엄중한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한일경제인 회의를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기업에 의한 협업, 제3국으로의 공동 진출 등에 대한 기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뵈었던 외교부의 박진 장관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님으로부터도 한일 양국 기업의 연계와 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쳐 개최되었던 경제인회의는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로 개최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진지하게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채택한 공동성명에서는 양국 정부 간의 대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점에 대한 감사와 함께 엄중함이 더해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양국의 연계와 협력이 이제까지 볼 수 없을 만큼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3국에서의 연계와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더 나아가 인재와 문화를 포함한 폭넓은 민간교류를 해가자는 데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합의를 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회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56회 경제인회의를 도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경제인 여러분과 재회할 수 있기를 지금부터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사사키 일본 측 단장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혹시 질문이 있으신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겠는데 소속 성명 밝혀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고 조금 큰 목소리로 질문을 해 주시면 통역을 통해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가운데에

계신 손 들어주신 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통역을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닛케이신문 호소카와

닛케이신문의 호소카와입니다. 두 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취임한 이후 개선되었고 방향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것이 불가역적인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도록 경제계에서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본 측 대표단 단장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경제인들은 민간 경제인들과의 교류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그리고 또 하나 풀뿌리 차원에서의 교류 이런 것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처럼 다중적이고 중층적인 교류가 더욱더 견고해진다면 정치가 아무리 움직인다 하더라도 저희는 반석처럼 매우 견고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것이 영속, 지속 가능하고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희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 : 닛케이 측 질문에 대해서 한국 측 단장님 말씀 청할 수 있을까요.

김윤
한국 측 대표단 단장

네. 첫 번째 질문을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양국의 경제인들이 사실은 제일 걱정이라고 할까 신경을 쓰는 부분이 과연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갈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이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경제계는 사실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간에 자기가 할 일은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돈을 버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해야죠. 장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정부가 바뀌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사키 회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민간 교류를 많이 하면서 서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해 가는 노력을 한다면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 조금 답변이 되셨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소속과 이름 밝혀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매일경제신문 송민근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의 송민근입니다. 좋은 협력의 장 만들어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양국 협력 방안 말씀 주신 것 중에 양국의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 유치하기 위해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있다면 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사회 : 이것도 사사키 회장님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다.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본 측 대표단 단장

일단 공동성명안에도 담았습니다만 2025년에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도 협력을 하고 또 부산 박람회가 유치 가능하도록

경제계 차원에서 하는 협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한 재계 차원에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고 우선은 이와 같은 형태로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 : 김윤 회장님.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김윤
한국 측 대표단 단장

저는 사실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11월에 아마 투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국가가 180여 개국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유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번 회의를 통해서도 일본 재계 측에 우리를 많이 도와 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기대를 합니다.

사회 : 양 단장님께서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사무국으로서 보완 설명 한마디 드리면 BIE(국제박람회기구)의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정부 차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양국의 경제인은 이미 결정된 2025년 오사카 만국박람회에 한국의 경제인이 다대한 협력과 기여를 하고, 2030년 부산에 유치가 결정될 수 있도록 경제인들은 일본 정부의 지지를 요망, 건의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계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한국을 지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강력한 발신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여성 기자께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소속과 이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뉴시스 동효정

뉴시스 동효정 기자입니다. 김윤 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회사에서 빠른 속도로 눈에 보이는 성과 이룩하겠다고 하셨는데 양국 경제협력 관련 어떤 방안 논의 중이신지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신지요.

김윤
한국 측 대표단 단장

이번에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정상께서 특별히 부탁을 하신 말씀이 신기술, 첨단 기술에 대해서 양국에서 협력을 하면 상당한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는 부탁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양국의 장점을 살려서 제3국 진출을 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사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가 상당히 오랫동안 추구해 왔던 활동입니다. 그래서 마침 양국 정상께서도 그런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 기업이 첨단기술에서 서로 더욱 협력하도록, 이제까지도 많이 했지만 더더욱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역시 제3국 진출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고 주로 제3세계의 인프라 쪽에 많은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협력해서, 한국은 제조 기술이나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상당히 있고 일본은 소프트웨어 노하우나 금융에 상당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서로 힘을 합치면 큰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 :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윤 단장 : 이상입니다.

사회 : 여러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앞에 손드신 기자님이 계시니까 기회를 드리고, 저희들이 5시 전에는 끝내야 되는 사정이 있어서 아주 특별하게 꼭 질문하고 싶다는 분이 혹시 안 계시면 저희들이 5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5분 전에는 끝냈으면 합니다.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사회 : 소속과 이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김준섭

파이내셜뉴스 김준섭 기자라고 합니다. 사사키 회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예방할 당시에 혹시 윤 대통령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또 혹시 일본 경제계를 대표해서 대통령께 요청사항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을 전달하셨는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회 : 일측 단장께서 말씀 주시기 전에 대통령님을 예방했을 때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이미 용산 대통령실이 공개된 보도 자료를 알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본 측 대표단 단장

제가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려도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서 우선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에 저희가 경제인회의를 예정대로 잘 개최를 했는데요. 그 전인 2023년 올해 3월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매우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호응하는 형태로 기시다 총리께서도 이 회의가 개최되기 일주일 전에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본격적으로 셔틀 외교가 재개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과의 면담에서는 이렇게 급속도로 정상화되는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진심으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저희 일한경제협회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교류를 이어왔다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 주셨고 또 앞으로 교류를 확대해 주기를 바란다는 기대의 말씀과 함께, 앞서 김 회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격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신산업과 첨단 기술이 개발되는 가운데 한일 연계가 더욱더 충실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국의 결단과 감사의 뜻을 제가 인사 말씀을 통해서 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협력의 활동에 대해서는 경제협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또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고 있는 가운데 인적 왕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저희들의 활동을 기존보다 더 활발하게 더욱더 충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 외에 저희 임원진들도 한 말씀씩 코멘트를 전달해 드렸고요. 저희로서는 그 결단을 통해서 큰 용기를 얻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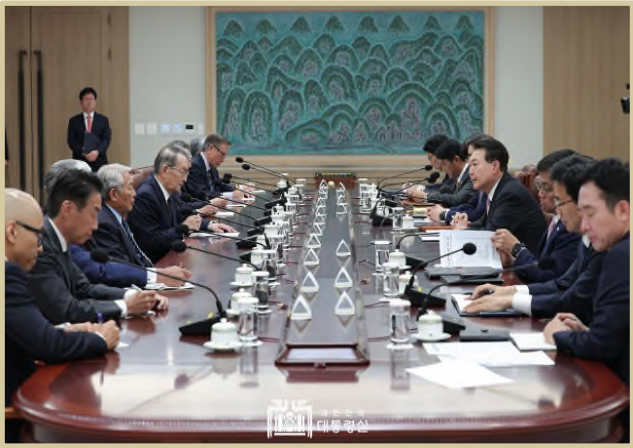
사회 : 사사키 단장님의 용기를 얻었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결론으로 듣고 양해해 주시면, 이것으로 양 단장님이 한번 악수를 하면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마감을 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면 양 단장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수를 하는 사진 한 장 남기고자 합니다.

언론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 화보 •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
THE 55th KOREA-JAPAN BUSINESS CONFERENCE
2023. 5. 16-17 SEOUL, KOREA

공 동 성 명(안)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를 2023년 5월 16~17일 이틀에 걸쳐 대한민국 서울 특별시에서 개최하였으며, 한국 측에서는 김 윤 단장 등 164명,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75명이 참가했다. 1969년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개최해 왔다. 기념비적인 제55회째를 맞이하여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4년 만에 대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참석한 양국 경제인들은 서로서로 재회를 반겼다.

지난 3월에 양자 방문으로서는 12년 만에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정부 간 대화가 진전되면서 서둘러고 세계와 함께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한일 양국 경제인은 감사하며 크게 환영한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일의 제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는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를 주제로,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미래를 응시한 양국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해 '경제인이 연계 움직이고, 움직이게 만든다'는 제언을 바탕으로, 기탄없는 의견을 나누었으며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 다 음 -

1. 경제 연계의 확대
한일관계의 개선을 향한 움직임이 화설해지면서, 상호 인적왕래도 활발해졌다. 오랜동안 바라왔던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크게 환영한다.
한일 경제인은, 연계·협력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메리트, 시너지를 새삼 확인하고, 제3국에서의 공동프로젝트, 디지털·그린 등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한일·일한 경제협회와 재단은, 경제협력 네트워크가 보다 끈끈해지도록 노력하고 협업 확대에 공헌한다.

2. 상호 교류의 촉진
개선이 진행되는 한일관계를 지지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한일 경제인은 경제는 물론 인재, 문화, 지역 간 등 폭넓은 교류를 통해 한층 더 신뢰를 쌓고, 과트너십이 보다 긴밀해지도록 노력한다.

3. 세계박람회의 성공을 향한 협력
2025년 일본국제박람회(오사카·간사이 엑스포)의 성공에 협력하고,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의 한국·부산에서의 개최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

그리고, 다음 제56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24년에 일본에서 개최한다.

2023년 5월 17일

한국측 대표단 단장 김 윤
일본측 대표단 단장 佐々木幹夫